

해바라기 센터



● 개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가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광역시·도, 지방경찰청, 병원 4자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던 센터들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해바라기 센터'로 통일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센터는 위기 지원형, 아동·청소년형, 통합형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명칭 뒤에 '(아동)'을 붙여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2003년 6월에 아동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고 같은 해 11월에 해바라기센터 설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이 구성되었으며 2004년 6월에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처음으로 개소하게 되었다. 이후 전국에서 해바라기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현재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4개(서울 4개, 부산 2개, 대구 2개, 인천 3개, 광주 2개, 대전 1개, 울산 1개, 경기 5개, 강원 2개, 충북 2개, 충남 1개, 전북 2개, 전남 2개, 경북 2개, 경남 2개, 제주 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추후에는 서울 1개, 경북 1개의 센터가 추가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도록 진료실, 상담실, 진술 녹화실, 안정실, 심리치료실이 설치되고, 여성경찰관, 임상심리사 및 임상심리전문가, 심리치료사, 상담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특히, 해바라기아동센터는 그 동안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아 수사상담 및 진술녹화 지원이 어려웠으나, 2014년 8월부터는 수사상담 및 진술녹화를 지원하는 경찰관이 상근 배치되어 신속한 수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주요 활동

본 센터의 주요활동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수사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의료지원, 사례지원 및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2차 피해 또한 방지하는 것까지 주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개입되어 있는데,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로 구성되어 있는 심리지원팀의 역할이 크다.

해바라기 센터는 위기 지원형, 아동·청소년형, 통합형으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황특성은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심리지원팀의 공통된 역할은 사건에 대한 면담 및 심리평가, 아동·청소년 심리치료와 부모 및 가족치료, 검사나 면담에 대한 보고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사·재판 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됨으로 인하여 해바라기 센터 내에서 심리지원팀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심리지원을 위한 임상심리 전문가의 인력충원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해바라기센터 통합형의 경우 전국에 11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센터에서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가 충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상심리전문가는 6명,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는 단지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경북동부 및 제주 해바라기 센터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리지원 서비스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점점 해바라기 센터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리지원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임상심리사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